

2020 사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사순은 교회가 부활의 큰 축제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회심을 위한 전례 시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변화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도록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사순을,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로써 살도록 권고합니다. 매일, 평생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미움과 원함과 시기과 질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회심에 대해 말할 때 대개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프고 무거운 어떤 것을 떠올리고, 그것이 참회와 희생과 고행과 결부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힘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회심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인간적으로 살기를 배우라는 부르심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심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인간적이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슬픈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때보다도 더 생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편협하게 만드는 이기심과 사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서 생겨나는 근심과 불평들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언제라도 회심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님을 생각합시다. 사랑하기에는, 행복하기에는 언제라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는 언제라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성모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특히 이 자비의 시기에 그분의 인도에 우리를 내맡깁시다.

기쁜 부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을 보내며,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iora General